

AI와 문화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다

GIST, 'AI&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 포럼 성료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GIST·한국문화기술연구소 공동 주관, 12월 4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AI와 문화기술 융합의 방향성 논의
- 정·산·학·연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AI와 문화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산업, 예술, 정책, 법·제도 측면에서 폭넓게 논의



▲ 12월 4일(목)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열린 'AI&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행사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AI와 CT(문화기술)의 융합이 문화 산업과 예술, 일상 속 문화 향유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는 포럼 'AI&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12월 4일(목)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GIST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윤정원)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산·학·연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AI와 문화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산업, 예술, 정책, 법·제도 측면에서 폭넓게 논의했다.



▲ 12월 4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열린 'AI&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AI와 문화기술 융합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첫 번째 세션 'AI&CT 융합 연구의 미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돈정 PD가 'K-컬처와 AI 융합 문화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PD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 흐름을 짚으며, AI와 문화기술의 융합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 이후 문화기술 R&D는 초실감 콘텐츠, 개인화 기술, 지능형 창작 도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지영 감성디지털휴먼연구실장은 '감성을 읽는 기술: AI가 만드는 개인화 경험'을 주제로, 감성 인식 AI가 사용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을 소개했다.

GIST AI융합학과 박도현 교수는 '생성형 AI의 주요 법적 쟁점' 발표를 통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딥페이크 및 가짜뉴스 문제 등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를 짚고,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AI&ART 융합'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현장이 집중 조명됐다.

카이스트(KAIST) 이진준 교수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AI와 창의성'을 주제로 AI가 예술 창작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상상력과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넥스터스튜디오 송재원 연구소장은 생성형 AI로 급변한 VFX 제작 환경과 미디어아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AI가 제작 공정의 효율화뿐 아니라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 생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GIST 안창욱 교수는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EvoM)' 사례를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음악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 'AI&CT 기술 향유'에서는 AI 기술이 실제 문화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윤정원 소장은 AI·CT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문화서비스 사례를 통해 AI가 정보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CT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윤정원 소장이 AI·CT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문화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재호 책임연구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지능형 문화유산 공유 플랫폼' 연구를 소개하며, AI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멜로 오진우 연구소장은 감정 TTS와 스튜디오급 음질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음성 기술의 진화를 설명하며, 디지털 휴먼과 게임 NPC 등과 결합한 실시간 상호작용형 AI 음성의 미래를 제시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김현식 센터장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션을 주제로, 텍스트-투-비디오와 자동 편집 기술 등이 영상·웹툰·게임 산업 전반의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윤정원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술이 콘텐츠 기술(CT) 분야의 창작, 제작, 향유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CT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과 법·제도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문화기술 연구 생태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산·학·연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AI와 문화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콘텐츠 산업, 예술 창작, 문화 향유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